양계 안테나

김 용 화
(본지 편집장)

양계산업, 경제 흐름의 변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불균형

양계산업이 2000년대 접어들어 그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해온 다양한 방안마련으로 인하여 생산 여건이 매우 달라졌다는 점이다. 어쨌든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시설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에 비해 소비는 아직까지도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생산자들이 가격을 예측하여 생산비 이상 희망이 보인다는 판단만 선다면 생산량은 대폭적으로 증가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가격상승의 기대가 좌절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농장 경영 시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여타의 방안 마련을 비롯한 병아리, 계란 또는 닭고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종종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다는 단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무리 양계산물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오더라도 직접 생산비가 출하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오면 농장에서 양계산물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다. 곧 돈이 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하시 가격에 대한 예측보다는 입추시 출하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양계농장 경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사업에 대한 결과는 항상 목표와 일치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인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하시에 대한 경기전망이나 분석보다는 입추시의 정황에 너무 민감하다는 것은 사업으로써 위험성을 그만큼 더 크게 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쨌든 양계산업이 과거에 비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외적인 변화가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할 필요성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정보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거나, 정보수집에 소극적이라면 늘 뒤쳐지는 경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쯤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소비는 이제 매스컴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로 짜여져 있다. 농축산물에 대하여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단계에까지 와있으나, 이에 대해 무관심한 마음가짐이나, 안전성에 대해 전혀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뉴스의 초점이 되면 엄청난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무감각한 마음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로건 양계산물이 식품으로써의 이의를 제기한다면 출하시 경기가 아무리 호황으로 진단되었더라도 불황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과거에는 살처분 하여 매몰한 폐사축도 경비를 하지 않는다면 파헤쳐 식용으로 하는 경우도 목격했지만 이제는 항생제의 성분이 경미하나마 축산물에 함유되었 있다면 전체 소비가 일시에 위축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도 엄밀히 따지자면 주변여건의 변화로 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양계산물, 전자상거래의 가능성 제고
거래단위 등 객관적 기초자료 정립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슬금슬금 인터넷이 등장하여 세상은 참으로 편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부인의 점유물로만 인식되었던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여 웬만한 농장이면 사무실마다 인터넷 전용회선이나, 전화 모뎀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수집에 눈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회가 운용하는 홈페이지의 경우를 토대로 본다면 아직도 인터넷 활용자 수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다. 단순한 정보제공은 물론 서류교환이나 의견전달의 매개체로 급격히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양계업계의 처지는 아직도 상거래까지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양계인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추측이 되나, 그간의 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양계산물도 대량유통시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비중을 높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할 서둘러 양계산물의 표준화 작업을 이루어 가야 할 단계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다. 소나, 돼지의 경우에는 부위별로 등급제도가 정착되어 전화건, 경매장이건, 전자상거래건 일률적인 제품을 원하는 자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계산물의 경우에는 계란이건 닭고기건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온라인 상에서 거

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기준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생산자들보다는 오히려 사용자들이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장점을 이유로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이에 비해 양계인들은 아직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입장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아직까지도 몇을 제외하고는 먼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양계부분에 계열화 사업이 소개될 당시와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전 양계인들이 모든 양계산물을 당장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다. 손쉽게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으므로 양계인들이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은 양계산물이 인터넷상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기준을 설정해 주는 일일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축산관련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소고기와 돼지고만 취급하는 전문 사이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양계관련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거래상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기초가 없다는 지적이다. 타 분야에 뒤져가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되어 씁쓸한 마음이 앞선다.

병아리 품질은 생산성의 척도
생산현황 조차 파악 안돼

옛말에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였다. 물론 닭고기와 계란을 잘 생산하려면 병아리부터 품질이 좋아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러 해를 통하여 축산법의 개정으로 종계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다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이제는 제도와 규제가 완화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종계·부화인들이 병아리를 생산하여 실용계 농장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져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정부는 최소한의 규정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즉 원칙에 입각하여 실용계 병아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이나, 위생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된 종계로부터 병아리가 생산되어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수급조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생산에 임할 때에 특별히 지정해 놓은 자격이 없다. 자가용 종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품질에 대한 적법성을 상시로 검증받아야 할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는 셈이다. 종계 신고시 추백리 검색 결과를 첨부해야 하는 등 통제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품질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신고제도가 존속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병아리를 생산하는 부화·종계장에 대한 실태가 전혀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어 품질이 저하될 소지가 있는 종계의 난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생산에 대하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병아리를 생산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질병 유무를 체크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수준을 높여 양질의 병아리가 생산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